

미야기 주변의 볼거리

[山寺] 야마데라

야마데라(호주산 릿샤쿠지)는, 860년에 지카쿠대사 엔닌이 창건한 영험한 사찰로, 52만평의 경내에는 깊고 신성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정경이 펼쳐진다. 국가지정 명승·사적으로 되어 있다.



야마데라(아마가타시) [山寺(山形市)]

1689년 7월 13일에 방문한 바쇼는, 「한적함이며 바위에 스며드는 매미의 울음」이라고 읊었다. 산문을 들어서면, 응회암의 바위에 1015단의 돌계단이 바위에서 뻗어나온 듯 이어지며, 다리도 얼어붙을 것 같은 아찔한 고다이도에서는 웅대한 경관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.

[平泉] 히라이즈미

히라이즈미에는, 불교 가운데서도, 특히 정토사상의 가치관에 입각해 만들어진 다양한 사원·정원 및 유적이 한 무리로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고, 2011년, “히라이즈미 — 불국토 (정토) 를 나타내는 건축·정원 및 고고학적 유적군”으로 세계유산에 등록되었다.



모쓰지(히라이즈미초) [毛越寺(平泉町)]

추손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모쓰지. 같은 해인 850년에 지카쿠대사가 창건했으며, 당시에는 당탑 40, 승방 500을 헤아렸다고 한다. 가람 유구와 정토정원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. 국가지정 특별사적·특별명승.

주손지(히라이즈미초) [中尊寺(平泉町)]

히라이즈미문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주손지. 850년에 지카쿠대사 엔닌이 창건한 장소로, 참배로에는 수령 수백년의 삼나무가로수가 이어진다. 전면 금박칠의 곤지키도에는 후지와라 3대의 유해도 안치되어 있다. 세계유산.